
간종괴의 평가에서 ferucarbotran-조영증강 자기공명영상의 유용성

전남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· 광주보건대학 방사선과*

박병재, 김태호, 김재영, 최남길, 은성종, 한재진*

목 적 : 간종괴의 평가에서 조영전 T2 강조영상과 ferucarbotran-조영증강 T2 강조영상을 비교하여 ferucarbotran-조영증강 자기공명영상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자기공명영상에서 간종괴가 발견되었던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 중 남성병변이 8예(단순낭종 3예, 혈관종 5예)였고, 고형성 병변이 12예(간세포암 12예)였다.

사용장비는 GE Signa Horizon 1.5T였으며, 조영전 T2 강조영상과 ferucarbotran 주입 10분후에 T2 강조영상 을 얻었다. 영상의 평가는 조영전 · 후 영상 각각에서 종괴의 신호강도(signal intensity) 변화, 간종괴와 간실질과의 신호강도비(signal intensity ratio), 대조도 대 잡음비(contrast to noise ratio)를 구하여 그 차이를 서로 비교하였다.

결 과 : ferucarbotran-조영증강 T2 강조영상은 조영전 T2 강조영상에 비해, 신호강도 변화는 단순낭종에서는 차이가 없었고, 혈관종에서 40.7%, 그리고 간세포암에서는 14.9%의 신호강도 감소를 보여 종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신호강도 변화를 보였다. 신호강도비의 변화는 단순낭종에서 162.3%, 혈관종에서 152.7%, 그리고 간세포암에서는 210.4%의 증가를 보였다. 대조도 대 잡음비의 변화는 단순낭종에서 26.5%, 간세포암에서 43.1%가 증가되었고, 혈관종에서는 30.1%가 감소되었다.

결 론 : 간종괴의 평가에서 ferucarbotran-조영증강 T2 강조영상은 조영전 영상에 비해 높은 신호강도비로 종괴의 관찰이 용이하였고, 종괴의 종류에 따라 다른 신호강도 변화와 대조도 대 잡음비의 변화를 보여, 간종괴 감별에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생각된다.